

논문접수일 : 2014.07.03

심사일 : 2014.07.15

게재확정일 : 2014.07.29

서천꽃밭의 생불꽃 텍스타일 패턴을 활용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Maternity Wear Design using Textile Patterns of Saengbul Flower in Soe-Cheon
Flower Garden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Jang Ae-Ran

Jeju National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20635)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마더니티 웨어의 개념 및 디자인적 특성
- 2.2. 마더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직접면담 분석 결과
- 2.2. 마더니티 웨어 디자인을 위한 생불꽃의 텍스타일 패턴화

3. 서천꽃밭의 생불꽃 텍스타일 패턴을 활용한 마더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

- 3.1. 마더니티 웨어의 디자인 의도
- 3.2. 마더니티 웨어 디자인 제시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과 출산에 의해 초래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완화효과를 높이고자 길상적인 의미의 신화문양을 삽입한 마더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신화의 <서천꽃밭>이 인간생명의 원론적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주는 신화적 공간으로, 인간을 탄생시키는 생불꽃이 처음 만들어져 존재하였던 집을 차용하였다. 즉, 생불꽃을 응용한 문양콘텐츠화 과정에서 인간의 염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서의 상징성이나 종교적 상징성인 다산, 잉태, 다남, 신성과 번영 등의 신화적 의미를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길상적인 의미로 형상화한 텍스타일 패턴을 셔츠블라우스+스커트, 셔츠블라우스+팬츠, 원피스, 블라우스 겸 원피스+레깅스형태의 팬츠 등에 삽입한 총 4세트의 마더니티 웨어 디자인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디자인을 위한 주된 포인트는 가슴과 복부부위에 여유분을 충분히 주는 A라인 실루엣 디자인, 활동성을 겸비한 세련된 스타일의 유행성이 반영된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소재는 면소재, 면스판, 실크, 그리고 신화적 의미가 함축된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출력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마더니티 웨어에 생불꽃의 텍스타일 패턴을 삽입한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임신부들로 하여금 그 문양의 사용만으로도 부적의 효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수용하게 하여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생불꽃, 텍스타일 패턴, 마더니티 웨어 디자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maternity wear designs in order to relieve the psychological stress caused by the pregnancy and childbirth. To achieve this, it was borrowed that Seo-Cheon flower garden of Jeju myth is the mythical space explained and dealt with the theoretical issue of human life, and was produced the first Saengbul flower that gave birth to human. In other words, first, it developed the textile pattern designs that materialized auspicious image through interpreting the mythical meaning (pregnancy, fecundity, prosperity etc.) - symbol as the shamanistic object including human wish or religious symbol in process of pattern contents using Saengbul flower - from a modern view using Saengbul flower in Seo-Cheon flower garden of Jeju Myth. Second, it produced and suggested the maternity wear designs inserted the textile patterns, i.e. shirts blouse + skirt, shirts blouse + pants, one-piece dress and blouse-cum-one-piece + pants. The main design point is to design A-line silhouette to add sufficient on the region of th chest and abdomen, and to design the style reflected stylish and activity. It used cotton, cotton mixed with 5 % spandex, silk, and materials printed the textile patterns implied mythical meaning by DTP. And to conclude, by suggesting the design inserted the textile patterns into maternity wear, it makes pregnant woman accept the symbolic meanings, effect of amulet, only used textile patterns.

keyword

Saengbul flower, textile pattern, maternity wear design

1. 서론

임신부는 임신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인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편안한 활동성과 심미성을 갖춘 마더니티 웨어(maternity wear)를 착용하길 원한다. 이는 임신이후 체형변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오히려 마더니티 웨어를 통해 승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변화된 신체적 특징을 살리면서 자신만의 개성표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

라 사료된다. 그러나 정작 시판되고 있는 마터니티 웨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또 최근 여성들은 임신기간 동안에 마터니티 웨어 착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임신 중에 착용할 아이템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직장생활을 하는 임신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정장스타일의 필요성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정장스타일의 마터니티 웨어를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모임이나 여가활동, 레저 활동 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외출을 위한 아웃웨어용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의 필요성도 크게 요구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은 임부복 설계위주나 체형변화에 따른 임부복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이고(강효민, 2008; 김세란 등, 1975; 박미애, 2002; 이선명, 강순희, 1986), 패션지향적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박혜숙, 2008), 직장여성을 위해 체형을 고려한 기능적인 임부복을 개발한 연구(서주연, 박순지, 이희정, 2007; 임재린, 2000)와 수유에 적합한 임부복을 개발한 연구(심은정, 김소라, 2005; 이은혜, 2005; 전정희, 김여숙, 2000) 등이 있다. 그 외 시판 임부복의 적합성과 구매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영희, 2003; 최혜선, 김소라, 최진희, 2000; 한미경, 2013)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은 임신기간별 신체적 변화에 따른 기능적 디자인 요소로 마터니티 웨어를 개발한 연구인 반면, 불안감 해소 및 미적 충족, 스트레스 완화 요소를 갖춘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단지 강효민(2008)이 최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의식변화로 인해 임신을 기념하거나 자축하기 위해 만사사진촬영, 축하파티, 베이비 홈페이지 제작, 베이비샤워 등으로 임신 시 심리적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오히려 임신의 기쁨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임부복(maternity dress)과 마터니티 웨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식되고 있는 임부복의 기존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마터니티 웨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의해 초래된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길상적인 문양을 삽입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장애란, 현명관, 김현미, 2013)에서 개발한 길상적인 의미의 신화문양을 삽입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서 임신부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화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여기에서 신화문양을 삽입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되거나 시판되고 있는 마터니티 웨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제주신화에서 인간생명의 원론적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주는 <서천꽃밭>이란 신화적 공간에서 인간을 탄생시키는 생불꽃이란 신화소(神話素)를 응용한 문양콘텐츠화 과정에 인간의 염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서의 상징성이나 종교적 상징성인 다산, 잉태, 다남, 신성과 변영을 함축시켜 개발한 문양을 삽입함으로써 임신부들로 하여금 그 문양의 사용만으로도 부적의 효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수용하게 하여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마터니티 웨어의 개념 및 디자인적 특성을 고찰한다. 특히 강효민(2008)의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마터니티 웨어가 신체적인 변화가 두드러진 임신 4개월~7개월 전후에 가장 높은 필요성과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결론과 구입 시에는 임신부의 심리적, 신체적 특징이 반영된 디자인과 기능적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 박혜숙(2008)의 패션지향적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에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의 개선점을 도출한 결과를 차용한다. 이차적으로는 앞에서 도출한 결론을 근거로 제주지역에 거주한 임신 기간이 6개월~8개월인 임신부 20명과 1:1 직접면담(2014년 3월 10일~3월 25일)을 통해 마터니티 웨어의 선호 아이템 및 디자인, 마터니티 웨어의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그리고 제주신화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토대로 신화적 주술성과 동백꽃의 상징적 의미를 접목시켜 도출한 신화문양을 마터니티 웨어에 삽입한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임신 중기의 임신부를 위해 셔츠블라우스+스커트, 셔츠블라우스+팬츠, 원피스, 블라우스 겸 원피스+레깅스형태의 팬츠 등에 신화문양을 삽입한 총 4세트의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작한 후 임신 중기(8개월)의 임신부를 착의모델로 착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마터니티 웨어(Maternity wear)의 개념 및 디자인적 특성

마터니티 웨어란 '임신부를 위한 의상'이란 의미

로, 임신기간과 출산 뒤에도 착용하는 의상 전반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임부복(maternity dress) 혹은 임신부복(maternity robe), 임신복(maternity apparel)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미지는 홈웨어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등 시대적 트렌드에 못미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인식하고 있는 임부복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임산부들의 의복, 액세서리, 속옷 등을 총괄적으로 포함한 의미인 '마터니티 웨어'란 용어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사례로, 요즘 임산부들을 위한 인터넷상의 각종 의상과 패션용품 쇼핑몰에서도 '마터니티'라는 용어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 최근에 등장한 마터니티 스타일이 다양한 기능성과 패션성이 가미된 디자인, 다양한 아이টে็ม으로 구성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박혜숙, 2010).

따라서 트렌디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하려면 먼저 임신기간 중의 체형변화에 따른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 임신 기간별 요구되는 마터니티 웨어의 디자인적 특성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임신부의 신체변화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임신초기(1~4개월), 임신중기(5~7개월), 임신 후기(8~10개월)로 구분하였을 경우, 임신 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완만하고, 5, 6개월과 7, 8개월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보이며, 8, 9개월부터 10개월까지는 증감율이 낮고 일정해지는 S자형 성장곡선을 그린다(이선명, 19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제주지역에 거주한 임산부와의 직접면담을 통해 임신 중기가 신체적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며 마터니티 웨어의 필요성에 따라 구매력이 가장 높은 시기란 결론으로 인해, 이 시기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기위해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디자인의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 중기는 신체적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로, 임신 전에 비해 배가 불러오고 유방의 크기도 많이 커진다. 중기 전반은 임신의 안정기로, 복부의 변화보다는 유방의 변화가 큰 시기이다. 즉, 임신 4개월에서 5개월 구간이 유두 간격과 가슴너비, 가슴 두께의 변화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중기후반은 복부의 변화가 현저히 일어나며, 팔, 다리, 얼굴 등이 붓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허리너비의 변화량도 임신 중기에서 변화 계측치가 높게 나타나다가, 후기에는 그 변화량이 줄어들고 태아의 성장에 따른 복부의 길이변화량(흉골 아래 짐에서 부터 회음 짐까지의 길이)이 중기 전반에서 중기후반의 사이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시 고

려할 점은 중기초반에는 가슴부분의 디자인과 기능성을, 중기후반에는 복부부분의 디자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박혜숙(2008)은 기능적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으로 스타일의 다양한 변형이나 변형 가능한 디자인과 무엇보다도 탈착의가 용이하고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특히 임신기간 동안 체형변화에 따라 사이즈를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고,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세련된 스타일의 유행성을 반영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2.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직접면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인 임신과 출산에 의해 초래된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실증적인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해 1:1 직접면담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제주지역에 거주한 임신 기간이 6개월~8개월인 임산부 20명과 1:1 직접면담을 2014년 3월 10일~3월 25일까지 실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마터니티 웨어의 착용 시기, 선호 아이টে็ม 및 디자인, 마터니티 웨어의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그리고 제주신화 서천꽃밭의 생분꽃을 토대로 신화적 주술성과 동백꽃의 상징적 의미를 접목시켜 도출한 신화문양을 마터니티 웨어에 삽입한 것에 대한 만족도 등이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 대상자의 연령은 35~39세가 45%, 30~34세가 40%, 25~29세가 15%이었고, 임신 기간은 7~8개월이 40%, 8개월 이상이 35%, 6~7개월이 25% 순서로 나타났다. 임신 횟수는 세 번째가 45%, 초산이 40%, 두 번째가 10%, 네 번째가 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터니티 웨어의 착용 시기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가 45%로 가장 높았고, 5개월부터는 25%, 4개월부터는 10%, 7개월부터는 5%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임신 6개월부터 마터니티 웨어를 착용하길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마터니티 웨어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는 디자인(32%), 색상(25%), 기능성(22%), 소재(15%), 가격(6%)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마터니티 웨어의 선호 아이টে็ม 및 디자인에 대해서는 강효민(2008), 박혜숙(2008), 서추연, 박순지, 이희정(2007), 이희승, 정삼호(2000), 임재린(200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원피스, 바지, 블라우스가 필요 아이টে이며, 원피스(31%), 블라우스+바지(25%), 블라우스+스커트(6%), 재킷+바지(3%) 등의 코디를 선호

함을 알 수 있다. 선호 색상과 실루엣은 블랙 & 화이트(40%), 밝은 파스텔톤(20%), 무채색(15%), 그리고 색상과 상관없다(25%)는 응답도 있었다. 선호 실루엣은 A-line(40%)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문양에 대해서는 민무늬(50%)가 가장 높았고, 스트라이프(10%), 큰 포인트 무늬(10%), 기하학 무늬(5%)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마티니티 웨어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활동이 편한 디자인, 즉 탈착의가 용이한 디자인(40%)과 세련된 스타일의 유행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출산 후에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40%)이 높았다. 그 외에도 임부의 체형이 너무 커 보이지 않도록 한 디자인(5%)에 포인트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임신 기간 동안 체형변화에 따라 변형 가능한 기능적 편리성(10%)도 디자인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일차적으로 마티니티 웨어 디자인 선호도에 대해서는 먼저 원피스, 블라우스+스트레이트 팬츠, 블라우스+스커트, 원피스형 블라우스+레깅스 형태의 팬츠 등 4세트의 마티니티 웨어 디자인을 제시하여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응답(85%)과 다르다는 응답(15%)이 나왔다. 다르다고 한 이유는 문양이 특이하다, 기존 디자인에 비해 화려하고 스타일리쉬한 것 같다, 문양이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다르지 않다는 이유는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 기존에 보던 실용적인 마티니티 웨어와 유사하다, 일상복과 유사하다, 마티니티 웨어가 워낙 디자인이 한정적이어서 디자인 면에서 다른 마티니티 웨어와 별로 다르지 않는 듯하고 다만 신화문양을 응용하여 개발한 패턴이라서 관심이 간다고도 하였다. 이차적으로 마티니티 웨어에 삽입한 생불꽃을 활용하여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에 대해 길상적인 의미와 오방정색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설명한 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마티니티 웨어 디자인과 다르다는 응답(65%)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35%)이 나왔다.

항목	치수	항목	치수
키	156	가슴둘레	108
몸무게	75.6	허리둘레	98
팔길이	54	배둘레	107
어깨끝점사이 길이	37	엉덩이둘레	106
뒷폭	42	가슴두께	27
앞폭	42	허리두께	29
허리너비	34	배두께	32
배너비	34	엉덩이두께	28
		밑위길이	30

[표 1] 착의모델의 신체치수 (단위:cm, kg)

이상의 직접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부의 체형 특징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임신 8개월인 임신부를 착의모델로 선정하여 신화문양이 삽입된 마티니티 웨어 디자인을 제작한 후 착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착의모델인 임신부의 신체치수는 [표 1]과 같다.

2.3. 마티니티 웨어 디자인을 위한 생불꽃의 텍스타일 패턴화

장애란, 현명관, 김현미(2013)는 선행연구에서 제주시의 서천꽃밭에 등장한 생불꽃이 어떤 꽃인지를 실제적인 식물체계에서 유추한 후 생불꽃의 의미와 실제 꽃의 상징적 주술성을 접목시킨 신화적 의미를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길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텍스타일 패턴 3가지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천꽃밭을 처음 만들었다는 생불할망본풀이에서 살펴보면, 꽃가꾸기에서 승리한 생불할망은 생불신이 되어 하늘로부터 사람을 잉태시킬 수 있는 꽃씨를 얻어와 지상에 심어 서천꽃밭을 만들고 여기에 편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며 아기를 점지·잉태시키는 일을 하였다. 여기에서 단순한 은유체계로 구성된 생불꽃을 실제적인 식물체계에서 동백꽃임을 유추하였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해준 것은 심방(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기능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인 김윤수)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동백꽃이 전 도에 피어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자문해주었다. 그 외에도 현재 행해지고 있는 불도맞이제의 제상에 제물 외에 생불꽃으로 동백꽃을 꽃은 사발을 두 개 올리고 굿을 시작한 것과 봉오리가 있는 동백꽃을 쌀을 넣은 사발에 동백꽃 이파리가 대 여섯 개 붙은 가지를 몇 개 꽂아 놓은 것 등을 통해서도 생불꽃이 동백꽃임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에 생불꽃의 신화적 주술성과 동백꽃의 상징적 의미를 접목시켜 다산, 잉태, 고고함, 다남, 신성과 번영 등의 신화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생불꽃의 신화적 의미를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디자인한 동백꽃 모티브를 적절한 배열방식으로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과정을 3단계(모티브 도출, 리프트 구성, 텍스타일 패턴화)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첫 단계는 생불꽃에 함축된 신화적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백꽃 형태를 은유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동백꽃 모티브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에서 도출한 생불꽃

의 모티브를 기본단위로 패턴화를 위한 기본반복단위로 재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재구성한 기본반복단위에 주로 액운을 피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오방정색 중 황, 청, 백, 적 등의 색상을 입혀 패턴화 하였다.

텍스타일 패턴화 작업을 위한 제작도구로는 Adobe CS5(Photoshop, Illustrator)와 텍스타일 캐드 프로그램인 TexPro를 사용하여 세트 레이아웃 방식인 프록터(Richard M. Proctor)의 8가지 반복배열형식 중 스퀘어 패턴과 다이아몬드 패턴의 반복배열형식을 이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생불꽃의 신화적 의미를 길상적인 상징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백꽃 형태를 은유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동백꽃 모티브를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배열형식과 색상을 변형하여 재패턴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오방정색을 입힌 것은 제주신화 속에 등장한 서천꽃밭의 생불꽃이 동·서·남·북·중앙 중 어느 방향에 있는 꽃으로 접지하는가에 따라 아이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동쪽의 푸른 꽃으로 접지하면 아들, 서쪽의 하얀 꽃은 딸, 북쪽의 검은 꽃은 단명, 남쪽의 붉은 꽃은 장명, 그리고 중앙의 황색 꽃을 접지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만과출세하게 된다는 색상의 의미를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위한 생불꽃의 패턴화 과정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1은 생불꽃인 동백꽃이 지니는 신성과 번영의 신화적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해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활짝 핀 동백꽃의 이미지를 곡선 느낌의 면으로 단순화하여 디자인한 양식형 모티브를 먼저 사각의 각 모서리에 조각낸 모티브의 1/4 부분을 배치하고 중심선에는 모티브 중앙에 배치한 활짝 핀 꽃잎 형태를 재배치함으로써 새롭게 조합된 기본반복단위(one repeat)를 구성하였다. 이 리피트를 반복배열형식 중 스퀘어 패턴에 적용하여 단조로운 스트라이프 패턴 이미지의 텍스타일 패턴을 개발하였다. 색상은 오방정색 중 생명과 창조, 불멸을 상징하는 청색계열(C100 · M65)과 광명과 생기의 정화를 상징하는 황색계열(M20 · Y100, M100 · Y100)의 메인 컬러와 백색의 서브컬러를 배색하였다. 여기에서 오방정색 중 청색과 황색을 입힌 이유는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염원과 그 아이가 출세하길 기원한다는 신화속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시키기 위함이었다.

2-2와 2-3은 생불꽃인 동백꽃이 지니는 임신과 남

아 잉태란 신화적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해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동백나무로 만들어진 망치에는 액운을 쫓기도 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염원과 여자의 엉덩이를 쳐서 남자아이를 낳게 하는 연장으로 쓰이기도 하였다는 주술적 의미를 망치 모양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줄기가 달린 실제적인 동백꽃의 원형을 그대로 추출, 단순화하여 디자인한 양식형 모티브를, 2-2에서는 모티브의 줄기부분을 사각형 안의 중심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치한 후 이를 90° 회전으로 반복 배치함으로써 조합된 기본반복단위를 구성하였다. 이 리피트를 반복배열형식 중 스퀘어 패턴에 적용하여 작업한 1차 패턴 위에 신성을 의미하는 백색 리피트를 스퀘어 패턴에 적용하여 작업한 2차 패턴을 중첩함으로써 마치 캔버스에 그려진 한 폭의 유화 이미지의 텍스타일 패턴을 개발하였다. 2-3 역시 실제적인 동백꽃의 원형을 그대로 추출하여 마치 망치모양으로 단순하게 형상화하여 디자인한 양식형 모티브를 토스 레이아웃(tossed layout) 방법으로 모티브들의 방향을 일정하지 않게 배경에 흐트러지게 한 기본반복단위를 구성하였다. 이 리피트를 반복배열형식 중 스퀘어 패턴에 적용하여 생불신이 아이를 잡지, 잉태시키기 위해 서천꽃밭에 탄 생불꽃의 이미지를 텍스타일 패턴으로 개발하였다. 색상은 오방정색 중 진녹색의 동백처럼 오래 살고 동백의 푸르름처럼 변하지 않으며 영화로움의 염원을 내포하기 위해 생명과 창조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청색계열(C100 · M65)과 장명, 벽사를 상징하는 적색계열(M100 · Y100)의 메인 컬러와 녹색계열(M35 · Y100)과 백색, 청색계열(C50 · M15 · Y10), 황색계열(M35 · Y100)의 서브 컬러를 배색하였다.

2-4는 동백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까닭에 부여된 다자 다남과 다산이란 주술적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해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동백꽃의 다산의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해 꽃의 생식기간인 동백꽃의 꽃술이미지를 선으로 단순화하여 디자인한 양식형 모티브를 서로 마주보게 복사한 후 이를 다시 상하좌우 대칭으로 반복 배치하였고, 그리고 그 중앙에 꽃술이미지를 제거한 모티브를 90° 회전으로 반복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새롭게 조합된 최종 기본반복단위를 구성하였다. 이 리피트를 반복배열형식 중 스퀘어 패턴에 적용하여 작업한 1차 패턴 위에 단순하게 표현한 동백꽃 이미지의 2차 패턴을 재배열함으로써 단순함을 보완하였다. 색상은 오방정색 중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고 가장 고귀함을 의미하는 황색계열(C30 · M30 ·

번호	신화적 의미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모티브 및 반복단위	컬러	패턴 어플리케이션	패턴 디자인
2-1	신성과 번영		Main Color M20 Y100 M100 Y100 C100 M65		
			Sub Color White		
2-2	임신 남아 잉태		Main Color M100 Y100 White C100 M65		
			Sub Color C100 M30 Y100 C50 M15 Y10 M35 Y100		
2-3	임신 남아 잉태		Main Color M35 Y100 M100 Y100 C100 M65		
			Sub Color M35 Y100 White C50 M15 Y10		
2-4	다산의 의미		Main Color C30 M30 Y70 White C85 M35 Y45 K10		
			Sub Color C95 M60 Y45 K30 C65 M10 Y10 C75 M20 Y40		

[표 2] 마더티웨어 디자인을 위한 생불꽃의 텍스타일 패턴화

Y70)과 신성을 의미하는 백색,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으로 창조, 생명, 신성을 상징하며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청색계열(C85 · M35 ·

Y45 · K10)의 메인 컬러와 밝은 톤의 청색계열(C95 · M60 · Y45 · K30, C65 · M10 · Y10, C75, M20, Y40)의 서브 컬러를 배색하였다.

3. 서천꽃밭의 생블꽃 텍스타일 패턴을 활용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

3.1. 마터니티 웨어의 디자인 의도

길상적 의미의 신화문양을 삽입한 마터니티 웨어의 디자인 제작 의도는 임신과 출산에 의해 초래된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실증적인 제작에 앞서 길상적 의미의 신화문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마터니티 웨어로 적합한 선호 아이템을 도출한 결과를 근거로, 셔츠블라우스, 원피스, 블라우스 겸 원피스에 신화문양을 삽입한 디자인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한 결과, 정서적인 안정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음, 태아와 산모에게 좋은 기운을 주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음, 태아에게 건강한 기운을 줄 것 같음, 상징적 의미로 인해 구매동기가 될 것 같음, 디자인 측면에서 시판되고 있는 마터니티 웨어와 유사하나 신화문양이 삽입된 것이 특이하고 의미적 가치가 크다 등 (65%)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반면에 신화문양을 일반적인 패턴의 한 종류인 꽃문양일 뿐이며, 구매 시 길상적인 의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응답(35%)도 있었다.

따라서 마터니티 웨어에 신화문양을 삽입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디자인 포인트는 스타일리쉬하면서 활동성을 겸비한 캐주얼 스타일의 디자인, 세련된 스타일의 유행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출산 후에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임신부의 체형이 너무 커 보이지 않도록 한 디자인, 그리고 체형 변화에 따라 변형 가능한 기능적 디자인으로 구성된 마터니티 웨어를 제작하는 것이다. 실루엣은 체형 변화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상의는 A라인 실루엣으로, 하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결합시켰다. 소재는 신체적인 활동 용이성과 편안함, 체형변화로 신체 온도의 상승 및 땀 분비가 많아지므로 통기성이 좋고 물세탁이 용이한 면 소재나 체형적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신축성이 있는 면스판, 데님, 실크, 사틴 스판, 그리고 신화적 의미가 함축된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출력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색상은 액운을 피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오방정색 중 황, 청, 백, 적 등을 사용하였고, 선호 아이템으로는 착용빈도가 높은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원피스를 중심으로 셔츠블라우스+스커트, 셔츠블라우스+팬츠, 원피스, 블라우스 겸 원피스+레깅스형태의 팬츠 등으로 구성된

총 4세트의 마터니티 웨어를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제작 과정 중 임신 중기인 1명의 착의모델을 대상으로 착의 보정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3.2. 마터니티웨어 디자인 제시

3.2.1.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1

- 구성 : 블라우스 + 스커트
- 소재 : 면 아사 60수, 스판 데님, 40수 양면 다이마루 스판(소프트 시보리)
- 색상 : 황색계열, 청색계열, 백색
- 패턴 : 생블꽃의 신성과 번영의 신화적 의미를 형상화한 패턴

디자인 해설 : 디자인 1은 신체적 변화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신성과 번영의 신화적 의미의 패턴을 삽입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구성된 마터니티 웨어이다. 즉, 여유분이 많은 셔츠칼라가 달린 A라인의 원피스형 블라우스와 무릎 밑 길이의 타이트스커트로 구성하였다.

디자인 포인트는 중기가 가슴이 커지고 복부가 전방으로 돌출되는 시기이므로, 상의인 경우 커진 가슴과 복부둘레에 여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즉, 생블꽃의 신성과 번영의 신화적 의미를 스트라이프로 형상화한 텍스타일 패턴을 세로와 가로로 배열방향을 전환시켜 경쾌하고 모던한 감각의 캐주얼한 이미지는 물론 스트라이프의 착시적인 세로선 효과와 앞여밈의 전체 단추로 하반신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활용하였다. 또 옆선에 여유분을 증가시켜 개월 수 증가에 따라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탈착의가 용이하고 움직임이 자유롭고, 특히 임신기간 동안 체형변화에 따라 사이즈를 조절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화문양을 삽입하기 위해 장식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상의인 블라우스는 체형변화에 따라 가슴과 복부부분에 여유분을 충분히 주면서 변형 가능하게 하기 위해 A라인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이는 좁은 어깨, 가슴이 강조되지 않으며 험 라인으로 갈수록 넓어져 편안하면서 전체적인 체형 보안을 하여 날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면 아사

60수에 2-1의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프린트한 소재의 스트라이프를 세로선 효과로 활용하였고, 또 옆선에는 방향을 바꿔 스트라이프의 단조로움을 피하면서 여유분을 줄 수 있는 가로선의 무(gusset)를 덧대어 줌으로써 활동성은 물론 탈착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유를 고려하여 앞트임으로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임신부뿐만 아니라 수유부도 다양한 용도로 착용하기에 무난하다. 하의는 스카이 색상의 고급 소프트 캐주얼 스판 데님으로 만든 타이트스커트로, 평상복과 유사하게 디자인하였으며, 단지 스커트의 신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복부와 허리 부위에 신축성이 뛰어난 라온 소프트 시보리를 익스텐디드 패널(extended panel) 스타일로 덧대어줌으로써 복부를 부드럽게 받쳐주면서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3.2.2.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2

- 구성 : 블라우스 + 스트레이트 펜츠
- 소재 : 실크 12mm 사틴, 소프트실켓 사틴 스판, 40수 양면 다이마루 스판
- 색상 : 적색계열, 청색계열, 황색계열, 백색, 흑색
- 패턴 : 생불꽃의 임신과 남아 잉태란 신화적 의미를 형상화한 패턴

디자인 해설 : 디자인 2도 신체적 변화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임신과 잉태란 신화적 의미의 패턴을 삽입한 블라우스와 스트레이트 펜츠로 구성된 마터니티 웨어이다. 즉, 칼라밴드가 붙어있는 셔츠칼라와 앞여밈에 전체 단추가 달린 캐주얼한 A라인의 원피스형 블라우스와 스트레이트 펜츠로 구성하였다.

디자인 포인트는 상의인 경우 디자인 1과 마찬가지로 가슴이 커지고 복부가 전방으로 돌출한 임신 중기의 체형을 날씬해 보이면서 여유분을 주기 위해 스타일리쉬하면서 활동성을 겸비한 블라우스 백(blouse back) 스타일로 심플하게 디자인하였다. 즉, 볼륨감 있는 A라인 실루엣을 활용하는 것으로, 체형에 피트시키면서 디자인상의 여유 효과를 내기위해 뒤판을 절개한 요크선에 신화문양이 삽입된 가벼운 실크 사틴 소재로 개더를 잡아 결합시킴으로써 장식효과는 물론 배가 불러와도 두드러지지 않는 상당량의 여유를 주려는 의도였다. 또 블라우스 앞여밈에 전체 단

추를 달아 하반신이 길어보이게 하며, 탈착의가 용이하면서 움직임이 자유롭고 특히 임신기간 동안 체형 변화에 따라 사이즈를 조절해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무지와 텍스타일 패턴을 미스 매치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강화시키고 또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여 심리적인 만족감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디자인 포인트이다.

따라서 상의인 블라우스는 어깨는 좁고 가슴이 강조되지 않은 A라인 실루엣에 블라우스 백 스타일(뒤판 요크 선에 상당량의 개더를 넣어 여유를 줌)로 디자인하였다. 특히 칼라와 뒤판 일부에는 2-2의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프린트한 실크 12mm 사틴 소재를 사용하였다. 즉, 디자인 강조를 위해 셔츠 칼라에 텍스타일 패턴을 사용하여 시선을 위로 분산시켰으며, 뒤판 요크선에 프린트한 소재로 잡은 개더를 넣어 볼륨감 있게 함으로써 신체적 편안함을 고려하면서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의는 입고 벗기 편리하며 활동성이 좋도록 디자인하기 위해 신축성이 좋은 블랙색상의 소프트 실켓 사틴 스판으로 만든 스트레이트 펜츠로, 평상복과 유사하게 디자인하였으며, 블랙색상을 통해 블라우스의 복잡한 배색이 가지는 강렬함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디자인 1과 마찬가지로 펜츠의 신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복부와 허리 부위에 신축성이 뛰어난 라온 소프트 시보리를 익스텐디드 패널 스타일로 덧대어줌으로써 복부를 부드럽게 받쳐주면서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3.2.3.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3

- 구성 : 원피스
- 소재 : 40수 트월 면, 면 지수 레이스
- 색상 : 적색계열, 청색계열, 백색
- 패턴 : 생불꽃의 임신과 남아 잉태란 신화적 의미를 형상화한 패턴

디자인 해설 : 디자인 3도 신체적 변화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임신과 잉태란 신화적 의미의 패턴을 삽입한 베이비 돌 스타일의 원피스로 구성된 마터니티 웨어이다. 즉,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위해 리본과 레이스 장식, 컷 어웨이 솔더 슬리브(cut-away shoulder sleeve), 그리고 가슴 아래 부분을 절개한 하이웨스트라인에 개더로 처리함으로써 배의 돌출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신체

곡선에 적합하도록 디자인한 A라인의 원피스이다.

디자인 포인트는 원피스가 임산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টে็ม으로, 임신 중기 기간 중 가슴과 복부의 팽창, 어깨가 넓어지는 것을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베이비 돌 스타일의 원피스로 디자인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즉, 점차 후기로 갈수록 가슴과 복부가 가장 비대해지고 목둘레, 진동둘레, 허벅지둘레가 두꺼워지는 것을 고려하여 여유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운드 넥라인과 뒤 부분 트임, 컷 어웨이 솔더 슬리브, 개더 등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체형에 따라 자유롭게 가슴과 복부부위의 치수 조절이 가능하고, 활동하기 편하면서 배가 덜 나와 보이기 위해 가슴 바로 아래 부분을 절개하여 허리선을 넣은 하이웨스트라인에 개더처리를 함으로써 복부부위의 편안함과 배의 돌출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신체곡선에 잘 맞도록 디자인하였다. 하이웨스트라인의 개더처리를 위한 소재로는 생블꽃 모티브를 율동적인 형태로 단순화시켜 세련된 이미지로 형상화한 2-3의 텍스타일패턴을 40수 트월 면에 DTP로 프린트한 것을 사용하였다. 어깨가 넓어지는 것을 오히려 반전으로 여성의 신체에서 가장 매혹적인 어깨를 강조하면서 드러내는 컷 어웨이 솔더 슬리브의 과감한 노출을 통해 세련되고 트렌디한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백색과 청색계열, 적색계열 등의 무채색과 유채색의 강한 대비로 배색시킨 것은 텍스타일 패턴의 뚜렷한 이미지로 시각적 효과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화려함이 엿보이는 내추럴하면서도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접근하려는 의도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위해 햄 라인에 레이스 장식을 덧붙였고, 넥라인에 리본을 달아줌으로써 시선을 배에서 위 아래로 집중시키려는 의도였다.

3.2.4. 마티니티 웨어 디자인 4

- 구성 : 아웃원피스형태와 언더원피스형태를 레이어드한 블라우스+레깅스 형태의 팬츠
- 소재 : 실크 12mm 사틴, 소프트코튼 30수, 소프트 코튼 30수 스키니 트월 스판, 40수 양면 디아마루 스판
- 색상 : 황색계열, 청색계열, 백색, 흑색
- 패턴 : 생블꽃의 다산이란 신화적 의미를 형상화한

패턴

디자인 해설 : 디자인 4도 신체적 변화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산이란 신화적 의미의 패턴을 삽입한 블라우스와 레깅스 형태의 팬츠로 구성된 마티니티 웨어이다. 즉, 아웃원피스형태와 언더원피스형태를 레이어드한 원피스 겸 블라우스와 레깅스 형태의 팬츠로 구성하였다.

디자인 포인트는 상의인 경우 코튼 30수 백색 무지로 만든 아웃원피스형태와 실크 12mm 사틴에 2-4의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프린트한 소재의 언더원피스형태를 레이어드한 블라우스 겸 원피스를 디자인 한 것이 포인트이다. 즉, 복부부위의 편안함과 배의 돌출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평상복과 유사하게 하이웨이스트라인으로 디자인한 아웃원피스이지만 뒤 중심이 사선으로 커팅된 사이로 언더원피스가 노출됨으로써 뒤태에 반전을 주었고, 목둘레가 두꺼워지는 것을 고려하여 여유분을 충분히 주기 위해 키홀 넥라인으로 편안하면서 스타일리쉬하게 디자인하였다. 또 아웃원피스 형태의 블라우스에 2-2의 모티브를 핫픽스를 사용하여 장식함으로써 디자인의 강조는 물론 모티브의 크기를 극대화함으로써 화려한 패턴의 효과와 신화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상의인 블라우스는 서로 다른 형태와 이질적인 소재를 결합하여 새로운 멋을 추구하고 재미있는 마티니티 웨어로 디자인하였다. 즉, 약간 피트된 하이웨스트의 허리라인과 뒤 중심이 사선으로 커팅된 사이로 언더원피스의 노출, 그리고 생블꽃의 모티브를 크고 부드러운 형태로 단순화시켜 장식함으로써 온화하고 여성적인 이미지의 마티니티 웨어를 디자인 하였다. 하의는 신축성이 뛰어나고 활동성이 좋은 다크 네이비 색상의 소프트 코튼 30수 스키니 트월 스판으로 만든 레깅스 형태의 팬츠로, 디자인 1과 마찬가지로 팬츠의 신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복부와 허리 부위에 신축성이 뛰어난 라온 소프트 시보리를 익스텐디드 패널 스타일로 덧대어줌으로써 복부를 부드럽게 받쳐주면서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상에서 개발한 마티니티 웨어를 착의모델에게 착용시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제시한 일러스트보다는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며 신화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물론 텍스타일 패턴의 색상이 산뜻하고 시원한 분위기가 좋다고 하였다. 또 임산부는 신체온도의 상승 및 땀 분비가 많은 데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구성되었던 점, 앞여밈에 전체 단추를 달아 허반신이 길어 보이고 탈착의가 용이하면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점, 외출용이나 직장 입

	구성	일러스트 및 도식화		착용사례		
디자인 1	블라우스 + 스커트					
디자인 2	블라우스 + 팬츠					
디자인 3	원피스					
디자인 4	롱셔츠 + 레깅스 형태의 팬츠					

[표 3] 개발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산부를 위한 마터니티 웨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개선할 사항으로는 원피스인 경우 뒤 지퍼로 인해 탈착의가 불편하였다는 점, 출산 후 착용할 수 있도록 변형 가능한 기능적인 장치, 예를 들면, 옆 솔기에 파스너(fastener)나 단추 여밈 장치 등의 장금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화문양을 삽입하여 개발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일러스트레이션, 도식화, 착의모델이 착

용한 사례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과 출산에 의해 초래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완화효과를 높이고자 길상적인 의미의 신화문양을 삽입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었다. 신화문양을 삽입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되거나 시판되고 있는 마터니티

웨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제주신화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응용하여 인간의 염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서의 상징성을 함축시켜 개발한 문양을 삽입함으로써 임산부들에게 그 문양의 사용만으로도 부적의 효험이 있음을 수용하게 하여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며 마터니티 웨어의 필요성에 따라 구매력이 가장 높은 시기가 임신 중기이므로, 이 시기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둘째, 생불꽃의 신화적 주술성과 동백꽃의 상징적 의미를 접목시켜 다산, 잉태, 고고함, 다남, 신성과 번영 등의 신화적 의미를 길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동백꽃 모티브를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배열형식과 색상을 변형하여 재패턴화한 텍스타일 패턴을 사용하였다.

셋째, 마터니티 웨어 개발을 위한 디자인 포인트는 스타일리쉬하면서 활동성을 겸비한 캐주얼 스타일의 디자인, 세련된 스타일의 유행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출산 후에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임산부의 체형이 너무 커 보이지 않도록 한 디자인, 그리고 체형변화에 따라 변형 가능한 기능적 디자인으로 구성된 마터니티 웨어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실루엣은 상의는 A라인 실루엣으로, 하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결합시켰다. 소재는 신체적인 활동 용이성과 편안함, 물세탁이 용이한 면 소재나 신축성이 있는 면스판, 테넵, 실크, 사틴 스판, 그리고 신화적 의미가 함축된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출력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색상은 액운을 피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오방정색 중 황, 청, 백, 적 등을 사용하였고, 선호 아이템으로는 착용빈도가 높은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원피스를 중심으로 셔츠블라우스+스커트, 셔츠블라우스+팬츠, 원피스, 블라우스 겸 원피스+레깅스형태의 팬츠 등으로 구성된 총 4세트의 마터니티 웨어를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시작으로 임신과 출산에 의해 초래된 불안감 해소 및 미적 충족, 스트레스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다양한 길상적인 문양을 삽입한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시한다면 임산부들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문양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리라고 본다. 단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주신화 속에 등장한 생불꽃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제한적이었던 것과 마터니티 웨어에 신화문양을 삽입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강효민 (2008). 「체형변화 및 선호도에 의한 임부복 디자인 개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 서미아, 이연희 (2010). 신체적합성이 높은 임부복 하의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34(5), 715-725.
- 김세란, 김영희, 서태숙, 오영제, 이동원, 장인숙, 황현숙 (1975). 임신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임부복 연구, 『부학』, 8(0), 33-37.
- 박미혜 (2002). 「임부복 설계를 위한 치수규격 설정과 원피스 기본원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숙 (2008). 「패션지향적 마터니티 웨어 디자인 개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숙 (2010). 사회적 변화에 따른 마터니티 웨어 패션 연구. 『복식』, 60(4), 30-44.
- 박영희 (2003). 시판 임부복의 구매실태 및 만족도.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7(4), 67-77.
- 서주연, 박순지, 이희정 (2007). 직장여성을 위한 기능적인 임부복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5(9), 37-52.
- 심은정, 김소라 (2006). 수유복 겸용 임부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0(2), 147-165.
- 이선명, 강순희 (1986). 임부복 설계를 위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4(0), 91-131.
- 이선화 (1995). 『텍스타일 디자인』. 서울 : 미진사.
- 이은혜 (2005). 「외출용 수유복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린 (2000). 직장 임산부를 위한 임부복 Design 연구. 『동양대학교 논문집』, 6, 477-490.
- 장애란, 현명관, 김현미 (2013). 제주신화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응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667-676.
- 정영아 (2000). 「임신부 체형에 적합한 시각 효과를 위한 의복형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선, 김소라, 최진희 (2000). 시판 임부복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복식』, 50(5), 65-75.